

王勃의 〈春思賦〉研究

백 승 석*

<目次>

- | | |
|---------------|--------------|
| I. 들어가는 글 | IV. 수사형식의 특색 |
| II. 창작동기와 심리 | V. 나오는 글 |
| III. 구조내용의 분석 | |

I. 들어가는 글

王勃의 字는 子安으로 絳州龍門(현 山西河津)사람이다. 그는 隋末 大儒인 王通(584~618)의 손자이고, 王積(590~644)의 姪孫이다. 어려서부터 神童으로 알려졌던 그는 駱賓王·盧照隣·楊炯과 함께 “初唐四傑”로 불린다. 주로 高宗武后 시기에 활동했던 이들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당시에 이미 그들의 文名이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 王勃은 四傑 중에서 가장

*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郝雲卿이 中宗 때(705~710) 칙명으로 《駱賓王集》을 편찬하고 아울러 序文에: “낙빈왕은 고종조에 노조린, 양형, 왕발과 함께 문장으로 이름이 났는데, 海内에서 四傑이라고 칭하고 또한 盧駱楊王 四才子라고 말한다(駱賓王 …… 高宗朝, 與盧照隣·楊炯·王勃文詞齊名, 海內稱焉, 號爲四傑, 亦云盧駱楊王四才子).”라고 한 것을 보면 中宗朝에 이전에 이미 四傑이라고 並稱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舊唐書·裴行儉傳》에: “당시 후진 가운데 楊炯, 王勃, 盧照隣, 駱賓王이 모두 문장으로 명성이 있었다. 吏部侍郎 李敬玄은 그들을 칭찬하면서 裴行儉에게 추천해주었다(時有後進楊炯·王勃·盧照隣·駱賓王, 並以文章見稱, 吏部侍郎李敬玄, 盛爲延譽, 引以示行儉).”라는 기록이 있는데, 《太平廣記》 卷185에 의하면 李敬玄이 裴行儉에게 왕발 등을 천거한 구체적인 시기가 咸

단명했지만,²⁾ 그의 뛰어난 문학적인 성취는 후에 “四傑之冠”으로 일컬어지고 있다.³⁾

그런데, 王勃을 비롯한 四傑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그들의 詩歌에만 치중하고 그 밖의 문학작품에 대해서는 忽視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唐代文學 중에서 가장 큰 성과가 詩歌文學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사결에 대한 당시의 인식과 평가는 주로 賦와 駢文을 포함한 그들의 문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뒤에 그들의 詩歌로 전이된 것으로 보고 있다. 楊炯의 《王子安集·序》에서:

西南 蜀地の 뛰어난 문장은 모두 그의 문사에서 나오게 되었다. 매번 문장이 지어질 때마다 海内는 경이롭게 바라보았다(西南洪筆, 咸出其詞; 每有一文, 海内驚瞻).⁴⁾

또한 《舊唐書·楊炯傳》에서:

양형은 왕발, 노조린, 낙빈왕과 더불어 문사로 이름이 났는데, 海内に 王楊盧駱의 순서로 칭했고, 또한 사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楊炯이 이를 듣고 ‘내가 노조린 앞에 있는 것이 부끄럽고, 왕발의 뒤에 있는 것이 수치스럽다.’라고 말했다. 당시 논의하는 자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그 후에 崔融·李嶠·張說이 모두 사결의 문장을 중히 여겼다. 최유은 ‘왕발의 문장은 넓고 아득하여 속세를 떠난 자취가 있기에, 진실로 보통사람들이 미

亨二年(671)임을 밝히고 있어, 그들이 생존하던 당시에 이미 四傑로 명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沈惠樂·錢偉康, 《初唐四傑和陳子昂》, 上海古籍出版社, 1987, 4-5쪽 참조.

- 2) 四傑의 생졸년에 관해서는 兩唐書의 간략한 기록으로 이하에 줄곧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이것에 대하여 앞으로 좀 더 자세한 고증이 필요하겠지만 대략 왕발은 20대 후반, 楊炯은 40대 전반, 노조린은 50대 초반, 駱賓王은 60대 후반까지 생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安炳國, 《初唐四傑詩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67쪽 참조.
- 3) 《四庫全書簡明目錄》, 河洛圖書出版社, 1975, 584쪽.
- 4) 蔣清翊注, 《王子安集注》, 上海古籍出版社, 1995, 68쪽.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양형이 노조린과 필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양형의 말은 믿을 만하다.'라고 했다. 張說은 '양형의 文思'는 마치 높은 강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부어도 마르지 않아서, 이미 노조린보다 뛰어나고 왕발에 뒤지지 않는다. 왕발 뒤에 있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한 말은 사실이고, 노조린 앞에 있는 것이 부끄럽다고 한 말은 겸손해하는 것이다. (炯與王勃·盧照鄰·駱賓王以文詞齊名, 海內稱爲王楊盧駱, 亦號爲「四傑」. 炯聞之, 謂人曰: 「吾愧在盧前, 恥居王后」. 當時議者, 亦以爲然. 其後崔融·李嶠·張說俱重四傑之文. 崔融曰: 「王勃文章宏逸, 有絕塵之跡, 固非常流所及. 炯與照鄰可以企之, 盈川之言信矣!」 說曰: 「楊盈川文思如懸河注水, 酌之不竭, 旣優於盧, 亦不減王. 「恥居王后」, 信然; 「愧在盧前」, 謙也.)⁵⁾

이상과 같이 양형의 왕발의 문장에 대한 논평과 《舊唐書》의 4인에 대한 품평 기록으로도 당시의 四傑이란 명칭은 그들의 문장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또한 聞一多是 〈唐詩雜論·四傑〉에서:

왕발·양형·노조린·낙빈왕은 모두 문장가이다. 사절이란 멋진 칭호는 만일 오로지 문장을 논평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그것의 주된 의미는 그들의 賦와 四六文을 가리키는 것이다. 시를 말하며 사절이라고 칭하는 것은 비록 매우 이른 시기의 일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차용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을 따름이다.(王·楊·盧·駱都是文章家, 四傑這徽號, 如果不是專爲評文而設的, 至少它的主要意義是指他們的賦和四六文. 談詩而稱四傑, 雖是很早的事, 究竟只能算是借用.)⁶⁾

이상과 같이 聞一多是 사절에 대한 당시의 인식과 평가는 주로 賦와 四六文을 포함한 그들의 문장에서 시작하여 뒤에 그들의 시가로 전이된 것이라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정확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왕발을 비롯한 사절의 문학적 성취를 연구하고 그들의 文名이 널리 퍼지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자 먼저 그들의 賦에 대해서도 중시하지 않

5) 《舊唐書》,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4301-4302쪽.

6) 《文一多全集》, 三聯書店, 1982, 23쪽.

면 안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초당사걸의 賦 창작으로 말하자면 노조린의 작품수가 가장 많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왕발의 작품이 비교적 높게 평가되고 있고, 낙빈왕 그리고 노조린과 양형이 그 다음이다.⁷⁾ 王勃의 賦작품은 모두 12편인데, 이중에서 <춘사부>가 가장 특색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평가는 일부 小賦 형식의 詠物賦를 비롯하여 <七夕賦>와 <九成宮東臺山池賦>등과 같이 六朝시대의 풍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작품과는 달리 <춘사부>는 ‘詩賦合流’ 현상의 새로운 辭賦의 變體로써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⁸⁾ 본고는 王勃賦 연구의 시작으로 먼저 왕발의 대표작인 <춘사부>를 고찰해보고, 나머지 작품들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작품의 창작동기와 심리를 먼저 알아보고, 이어서 작품의 내용구조와 수사형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 작품의 특색과 가치, 그리고 賦體의 변화 발전 중의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창작동기와 심리

<춘사부>는 全篇 240句 1463字로 初唐賦 중에서 보기 드문 抒情 長篇으로, 王勃의 賦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이다. 왕발이 어떤 사회배경과 심리 상태에서 이 작품을 창작한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것은 <춘사부>의 의의와 가치를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春思賦>序文에서 왕발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咸亨 2년 내 나이 22세, 巴蜀에 머물며 세월의 흐름 속을 떠돌고 있다. 태평한 시대에 깊은 근심 지니고 있고, 聖世에 뜻을 얻지 못하고 있다. 九隴縣令인 河東人 柳太易은 재능이 뛰어나고 인품을 지닌 군자로, 나는 그

7) 馬積高, 《賦史》, 上海古籍出版社, 1987, 263쪽 참조.

8) 郭維森·許結, 《中國辭賦發展史》, 江蘇教育出版社, 1996, 378-379쪽 참조.

와 교류하며 속마음 깊은 생각 서로 실컷 나누고 울분을 한껏 토로했다. 때는 봄으로 풍경은 여전하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풍경은 다르지 않은데 눈을 들어 바라보니 山河의 다름이 있다’라고 하니 그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咸亨二年, 余春秋二十有二, 旅寓巴蜀, 浮游歲序, 殷優明時, 坎壈聖代. 九隴縣令河東柳太易, 英達君子也, 僕終游焉, 高談胸懷, 頗洩憤懣. 於時春也, 風光依然. 古人云: 風景未殊, 舉目有山河之異, 不其悲乎!)

여기에서, 王勃이 唐高宗 咸亨二年(671)에 巴蜀의 九隴縣에서 머물 때, 縣令인 柳太易과 교류하며 속마음과 깊은 생각을 서로 나누는 중에 자신의 느낌이 있어 이 〈春思賦〉를 창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종 함형 年間은 太宗이 정치적으로 성공적인 통치를 이룩했던 “貞觀之治”(627~649)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였다. 이때는 唐 왕조가 아직은 태평 성세로 王勃이 序文에서 “明時”와 “聖代”라고 할 만한 때였다. 才氣가 출중한 22歲의 王勃이 화사한 봄을 맞이하여 무엇 때문에 殷優와 坎壈의 감회가 있어, 이 울분을 한껏 쏟아낸 작품을 쓰게 되었는지는 《舊唐書·王勃傳》을 보면 알 수 있다.

乾封初에 궁궐에 나아가 〈宸遊東岳頌〉을 지어 올렸다. 東都에 乾元殿을 짓자 또 〈乾元殿頌〉을 지어 올렸다. 沛王 李賢이 그의 명성을 듣고서 불러 들여 沛府修撰으로 삼았는데, 그를 심히 아끼고 중히 여겼다. 당시 제왕들이 다툼을 통하여 서로 승부 내기를 하였다. 王勃이 장난삼아 〈檄英王鷄文〉을 지었는데, 高宗이 그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노하여, “이는 정말로 서로 재앙을 초래하는 징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날로 王勃을 쫓아내었고 王府에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乾封初, 詣闕, 上宸遊東岳頌. 時東都造乾元殿, 又上乾元殿頌. 沛王賢, 聞其名, 召爲沛府修撰, 甚愛重之. 諸王鬪鷄, 互有勝負, 勃戲爲檄英王鷄文. 高宗覽之, 怒曰: 據此是交構之漸. 卽日斥勃, 不令入府.)⁹⁾

乾封初는 高宗 乾封 元年(666)을 말하는 것으로, 나이 겨우 17歲에 불

9) 《舊唐書》, 4303쪽.

과한 王勃이 두 작품을 지어 올려 歌功頌德의 능력을 나타내자 일시에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沛王 李賢이 王勃을 초치하여 沛府 修撰의 자리에 앉히고 그를 매우 신임하였다. 당시 여러 왕자들이 鬪鷄의 도박 유희에 빠져 있었는데, 젊고 혈기 왕성한 王勃이 이에 대한 불만으로 <檄英王鷄文>을 쓰게 되었다. 그러나 이 유희성 짙은 문장 때문에 高宗이大怒하여, 결국 王勃은 관직을 잃고 王府에서 축출된 것이다. 이러한 타격은 王勃에게는 청천벽력으로, 그는 극도의 비분 속에서 長安을 떠나 멀리 蜀地로 여행을 떠났다가, 益州 九隴縣에 이르러 柳大易과 서로 만나 옛일을 회상하고 앞날을 생각해 보니 만감이 교차하게 되었고, 마침내 <春思賦> 창작의 영감이 떠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면, 당시 그의 심리상태는 어떠했을까? 다시 <春思賦>서문을 보면,

나는 재주는 없지만 그러나 정직한 선비이다. 나는 우주가 개인에게 부여한 心性을 받았고, 天地의 憤慨 不滿의 氣質을 받았다. 비록 연약하여 홀로 설 수 없고, 곤궁한 앞날의 처지가 아득하지만, 아직 권력이나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아부를 하거나 세속에 허리 굽혀 영합하려 한 적이 없다. 땀땀이 金과 石에 자신의 지조를 견줄 수 있어도, 봄에 멍하니 있을 수 없음은 봄의 미치는 곳이 멀고 넓으며, 봄의 느낌이 깊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窮賤을 위로하고 아름다운 光陰을 애석해 하며, 功名의 마음을 품고 세월의 흐름을 가슴아파하는 이유이다. 어찌 오직 깊은 궁실·협소한 길과 같은 벼슬길과 두렁길·뿡나무밭과 같은 남녀들이 즐기는 장소뿐이겠는가? 屈原의 “눈 들어 멀리 바라보니 봄을 맞은 마음 슬프도다”라는 말이 있기에, <春思賦>를 짓는데, 단지 봄이 이르는 곳을 파고들어 내 마음 가고 머물음을 헤아려 볼 따름이다.(僕不才, 耿介之士也, 竊稟宇宙獨用之心, 受天地不平之氣. 雖弱植一介, 窮途千里, 未嘗下情於公侯, 屈色於流俗. 凜然以金石自匹, 猶不能忘情於春, 則知春之所及遠矣. 此僕所以撫窮賤而惜光陰, 懷功名而悲歲月也. 豈徒幽宮狹路, 陌上桑間而已哉. 屈平有言: 「目極千里傷春心」, 因作春思賦, 庶幾乎以極春之所至, 析心之去就, 云爾)

위의 서문에서와 같이 王勃은 당시의 침통한 心理를 솔직하게 나타내고

있다. 본디 耿介之士이며, 이미 6세 때 뛰어난 문장을 지었던 조숙한 천재인 그는 바로 “拾青紫於俯仰, 取公卿於朝夕(고관현작의 높은 자리를 머리 들고 숙이는 사이에 얻고,三公九卿의 높은 벼슬을 아침과 저녁 사이에 얻는다)”(王勃〈上絳州上官司馬書〉)는 자신감과 걱정을 품고 수도인 長安으로 온 것이다. 그러나 그는 沛王府에서 자신의 포부를 펼치려고 할 때, 한편의 〈檄英王鷄文〉 때문에 王府에서 쫓겨나자 실망과 비분으로 蜀地를 떠돌게 되었으며, 이때에 그가 아름다운 봄의 경치를 마주하여 느낀 것은 즐거움이 아닌 슬픔이었다. 이에 王勃은 屈原의 〈招魂〉속의名句 “目極千里傷春心”에 생각이 미치게 되었고 가슴속에는 歲月如流·青春易逝·功名不就 등의 슬픔이 가득하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王勃이 〈春思賦〉에서 묘사한 主旨는 단순한 봄의 찬미가 아니라 “撫窮賤而惜光陰, 懷功名而悲歲月(窮賤을 위로하고 아름다운 光陰을 애석해 하며, 功名의 마음을 품고 세월의 흐름을 가슴아파하다)”에 그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기 자신의 懷才不遇와 포부를 펼칠 수 없는 세속에 대한 불만의 心思를 南北塞外的 春景春色에 대한 다양한 묘사 속에 기탁한 것으로, 劉勰의 《文心雕龍》에서 말하는 “因情而生文”의 작품이지 창작을 위한 창작으로 봄을 묘사한 “爲文造情”의 작품은 아니다.

Ⅲ. 내용구조의 분석

〈春思賦〉는 총 240句 1463字로 初唐時期的 賦작품중에서 보기 드문 長篇인데, 전편이 서문과 본문으로 이루어진 구조형식을 취하고 있다. 序文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散文 형식으로 창작의 동기와 시기, 그리고 작가 자신의 심리상태를 밝히고 있다. 本文은 그 내부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개의 다른 봄경치의 화면으로 편집하여 조합된 것으로, 한 화면은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고 있다. 이것이 다시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날 영화예술의 한 기법인 몽타주(montage) 기법과 거의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문을 모두 6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 1,2 若夫年臨九域, 韶光四極,
 3,4 解宇宙之嚴氣, 起亭臯之春色,
 5,6 況風景兮同序, 復江山之異國,
 7,8 感大運之盈虛, 見長河之紆直, 曾攝 入聲[職德同用] 域極色國直¹⁰⁾
 9,10 蜀川風候隔秦川, 今年節物異常年,
 11,12 霜前柳葉銜霜翠, 雪裏梅花犯雪妍, 山攝 平聲[先仙同用] 川年妍
 13,14 霜前雪裏知春早, 看柳看梅覺春好,
 15,16 思萬里之佳期, 億三秦之遠道,
 17,18 澹蕩春色, 悠揚懷抱,
 19,20 野何樹而無花, 水何堤而無草, 效攝 上聲[篠獨用] 早好道抱草
 21,22 於是僕本浪人, 平生自淪,
 23,24 懷書去洛, 抱劍辭秦,
 25,26 惜良會之道邁, 厭他鄉之苦辛,
 27,28 忽逢邊候改, 遙憶帝鄉春, 遇攝 平聲[真諄同用] 人淪秦辛春

- 1,2 그런데 때는 전국에 미쳐 화사한 봄빛은 사방으로 퍼지어,
 3,4 우주의 찬 기운을 풀어 물가의 정자에 춘색을 띄게 하네.
 5,6 이에, 경치는 같은 계절로 강산의 다른 지역에 머물러,
 7,8 자연의盈과 虛의 변화를 느끼며 長江大河의 굽이와 곧음의 다름을 바라보네.
 9,10 蜀川의 기후 秦川과 다르고, 금년 계절의 풍물과 경치는 예년과 다르네.
 11,12 서리 아래 버들가지 서리 머금어 푸르고, 눈 속의 매화는 아름답게 꽃 피웠네.
 13,14 서리 아래 눈 속 봄의 빠름 알겠고, 버들과 매화 보면 봄의 아름다움 느낄 수 있네.
 15,16 머나먼 곳에서의 약속이 그림고, 三秦의 아득한 길도 그리워라.
 17,18 봄빛은 느슨히, 너울너울 가슴에 파고드네.

10) 鮑明煒, 《唐代詩文韻部研究》, 江蘇古籍出版社 1990, 押韻字 참조. 이하 동일함.

19,20 들녘 어느 나무엔들 꽃이 없으며, 물가 어느 제방엔들 풀이 없으리.
 21,22 이에, 나는 본래 떠도는 나그네로 평생 뜻을 얻지 못하여,
 23,24 책을 품고 낙양을 떠나며, 칼을 품고 秦을 떠난다네.
 25,26 좋은 기회 홀연히 지나감이 안타깝고, 타향살이 어려움 싫어다.
 27,28 갑자기 변방에서 기후의 변덕을 만나니, 아득히 제왕 계신 長安 봄
 이 그림구나.

이 첫 단락은 다시 앞의 8句와 뒤의 20句로 구분할 수 있다. 앞부분은 본문의 序曲으로, 먼저 제1구에서 제4구까지는 봄의 따스한 햇빛이 세상의 곳곳에 비쳐들어 엄동설한의 찬 기운을 몰아내고, 물가에 파란 풀과 빨간 꽃들이 피어나는 찬란한 봄의 경치를 간략하게 묘사했다. 뒤 4句는 사계의 변화로부터 천지조화의 율과 虛를 느끼고, 강물 흐름의 曲直으로부터 굴곡이 심한 세상의 어려움을 생각나게 함을 순차적으로 표현하였다. 경치의 묘사에서 바로 깊은 사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왕발 자신이 역경에 처한 심리상태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어서, 제9句부터 마지막까지는 본문에서 나타난 첫 번째 畫面으로 자신이 떠돌고 있던 蜀地의早春을 묘사한 것이다. 이 화면은 “霜前柳葉”과 “雪裏梅花”를 중심으로 하여, 간결한 언어로 이른 봄의 경치를 선명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작자는 의식적으로 “霜”“雪”을 3번 중복하고 “柳” “梅”, “川”“年”, “春”“看”을 각각 2번씩 중복하여 음악적인 효과를 꾀하고 있다.¹¹⁾

그러나 巴蜀을 떠도는 것은 본래 王勃이 원했던 것이 아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蜀地 봄을 맞이하더라도 평생 뜻을 얻지 못하는 懷才不遇의 비애와 나라에 충성할 길이 없는 功名不就의 고통을 벗어날 수는 없고, 마

11) 高木重俊은 〈王勃の生涯と文學〉에서 이와 같은 반복적인 기교와 5·7言 詩句의 삽입 등의 형식은 梁과 陳·隋 시대에 시작한 것이고, 또한 王勃의 大叔父인 王績 〈三日賦〉에 직접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아울러 駱賓王의 〈蕩子從軍賦〉와 함께 盧照隣 〈長安古意〉·駱賓王 〈帝京篇〉을 시작으로 하는 唐初 長篇七言歌行詩의 성립에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北海道大學紀要》 第32卷1號, 1981年 11月, 63쪽)

음과 뜻은 長安의 궁궐에 머물러있음을 묘사하여 자연스럽게 다음 長安의 春色圖 화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2)

- 1,2 帝鄉迢遶關河裏, 神臯欲暮風煙起.
 3,4 黃山半入上林園, 元灞斜分曲江水.
 5,6 玉臺金闕紛相望, 千門萬戶遙相似. 止攝 上聲[旨止同用] 裏起水似
 7,8 昭陽殿裏報春歸, 未央臺上看春暉.
 9,10 水精却掛鴛鴦幔, 雲母斜開翡翠幃.
 11,12 競道西園梅色淺, 爭知北闕柳陰稀.
 13,14 斂態調歌扇, 迴身整舞衣.
 15,16 銀鬚吐絲猶未暖, 金燕銜泥試學飛. 止攝 平聲[微獨用] 歸暉幃稀衣飛
 17,18 妾本幽閨學歌舞, 寧知漢代多巡撫.
 19,20 前年齋祭謁甘泉, 今歲笙祠后土.
 21,22 桃花萬騎喧長薄, 蘭葉千旗照平浦.
 23,24 見原野之秀芳, 憶山河之邃古. 遇攝 上聲[夔姥同用] 舞撫土浦古
 25,26 長安路狹遶長安, 公子春來不厭看.
 27,28 杏葉裝金轡, 葡萄鏤玉鞍.
 29,30 聳蓋臨平樂, 迴笳出上蘭. 山攝 平聲[寒獨用] 安看鞍蘭
 31,32 上蘭經郭杜, 揮鞭日將暮.
 33,34 白馬新臨御溝道, 青牛近出章臺路. 遇攝 上聲[姥去聲暮同用] 杜暮路
 35,36 章臺接建章, 垂柳復垂楊.
 37,38 草開馳馬埭, 花滿鬪鷄場. 宕攝 平聲[陽獨用] 章楊場
 39,40 南隣少婦多妖婉, 北里王孫駐行幘.
 41,42 乍怪前春節候遲, 預道今年寒食晚.
 43,44 傷紫陌之春度, 惜青樓之望遠. 山攝 上聲[阮獨用] 婉幘晚遠
 45,46 紫陌青樓照月華, 珠帷翻帳七香車.
 47,48 蛾眉畫來應幾樣, 蟬鬢梳時髻欲斜.
 49,50 恨雕鞍之屆晚, 痛銀箭之更賒.
 51,52 行行避葉, 步步看花. 假攝 平聲[麻獨用] 華車斜賒花家

1,2 제향은 아스라이 函谷關과 黃河 속에 있고, 神臯에는 저녁 風煙이 일

- 려고 하네.
- 3,4 황산은 上林園을 반이나 접어들고, 元灞는 曲江池를 비스듬히 가로 지르네.
- 5,6 호화스런 玉臺와 金闕은 우뚝 마주 바라보며, 수많은 집들은 서로 멀리 이어져 있네.
- 7,8 昭陽殿 안에 봄이 왔음을 알리고, 未央臺 위에서 봄의 휘황함을 보네.
- 9,10 수정침대에 鴛鴦자수 장막 걸려 있고, 운모병풍엔 翡翠자수 휘장 비스듬히 열려있네.
- 11,12 서원 매화꽃 빛깔 열어짐을 다투어 말하고, 북궐 버들잎 그늘 적음을 어이 알리오.
- 13,14 몸가짐 바로 하여 歌扇을 휘젓고, 몸을 돌려 舞衣를 가다듬네.
- 15,16 하얀 누에 실 토할 때 아직 따스하지 않은데, 봄 제비 진흙 물고 날아 보려고 하네.
- 17,18 솟은 본래 깊은 규방에서 가무를 배웠는데, 漢代에 순회 위문할 줄 어찌 알았는가?
- 19,20 지난해는 제계하고 甘泉 제사지냈고, 올해는 생황 불며 土地神께 봄 제사 지내지.
- 21,22 수많은 桃花馬 숲속에서 떠들썩하고, 수많은 난초무늬 깃발 물가에 서 펄럭이네.
- 23,24 들녘의 아름다운 꽃 바라보며, 산하의 옛날을 생각하노라.
- 25,26 長安의 좁은 길 長安을 두루 감돌고, 公子는 봄 구경 싫증내지 않네.
- 27,28 柝葉무늬로 금고삐 장식하고, 포도무늬로 옥안장 새겼네.
- 29,30 우뚝 솟은 수레 덮개 平樂觀에 이르니, 피리소리 上蘭觀에서 흘러나오네.
- 31,32 上蘭觀은 鄠縣과 杜陽縣을 경계로 하여, 말을 달려도 하루해가 저문다네.
- 33,34 白馬는 御溝道에 이르고, 靑牛는 章臺路를 나온다.
- 35,36 章臺路는 建章宮에 이어지고, 늘어진 수양버들 겹겹이 드리웠네.
- 37,38 풀은 馬場에서 자라고, 꽃은 鬪鷄場에 활짝 피네.
- 39,40 남쪽 이웃 어린 아낙은 한껏 곱고, 북쪽 마을 도령은 行車를 멈추네.
- 41,42 이 봄의 계절기후 더디 가니, 올해 寒食은 느지막이 오리라.
- 43,44 제경의 길거리 봄 지나감 가슴 아프고, 기생집 靑樓의 모습 아득함이 애석하네.

- 45,46 제경의 길거리와 기생집 달빛 비치는데, 화려한 휘장의 七香車 있네.
 47,48 예쁜 눈썹 그럴 때 다른 양식 따르고, 蟬鬢 모양 빗을 때 비스듬히
 머리 땅았네.
 49,50 님이 탄 말 더디 도착함이 한스럽고, 물시계 늦게 감이 가슴아파라.
 51,52 가고 감에 나뭇잎 피하고, 걸음걸음 꽃구경이라.

이 단락은 제향 장안의 다양한 春景春色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제1句에서 제22句까지와 제23句에서 마지막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長安의 自然景物 위주로 묘사한 풍경화이고, 뒷부분은 長安 봄날의 生活風俗과 人事活動 위주의 풍속화라고 할 수 있다. 풍경화 속에는 香車玉輦에 公子麗人들이 그윽한 山水園林에서 한가로이 거닐고, 휘황찬란한 궁전누대에 나타나서 매화와 桃花와 버들가지, 吐絲하는 하얀 누에와 제비들을 흥미진진하게 감상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字行마다 봄의 냄새와 생기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풍속화 속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金轡玉鞍의 준마와 투계장의 노름꾼, 화류계를 찾아다니는 公子,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을 걸친 倡妓의 끊이지 않는 歌舞 등, 봄을 즐기는 사람들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이 풍경화에 이어지는 풍속화의 배열은 장안의 대단히 호사스런 春景春色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안에 대한 묘사는 왕발의 〈臨高臺〉나, 盧照隣의 〈長安古意〉, 혹은 駱賓王의 〈帝京篇〉등과 같은 詩작품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唐代的 “貞觀의 治” 이래로 국제적인 도시 장안의 번영된 사회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시대적인 색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왕발은 현실에 대하여 뚜렷한 인식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이 같은 사치스런 생활현상에 대하여 풍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리하여 바로 이어 다음 단락에서는 변방의 어둡고 힘든 봄의 화면을 묘사했다.

(3)

1,2 因狂夫之蕩子, 成賤妾之倡家 假播 平聲[麻獨用] 華車斜除花家

- 3,4 狂夫去去無窮已, 賤妾春未起.
 5,6 自有蘭闈數千重, 安知榆塞三千里. 止攝 上聲 [止獨用] 已起里
 7,8 榆塞連延玉關側, 雲間沈沈不可識.
 9,10 葱山隱隱金河北, 霧裏蒼蒼幾重色. 曾攝 入聲[職獨用] 側識色
 11,12 忽有驛騎出幽并, 傳道春衣萬里程.
 13,14 龍沙春草遍, 瀚海春雲生.
 15,16 疏勒井泉寒竭, 燕山烽火夜應明.
 17,18 聞道河源路遠, 誰教夫壻苦行行. 假攝 平聲[庚清同用] 并程生明行
 19,20 君行塞外多霜露, 爲想春臺起煙霧.
 21,22 游絲空冑合歡枝, 落花自遠相思樹. 遇攝 去聲[遇暮同用] 露霧樹
 23,24 春望年年絕, 幽閨離緒切. 山攝 入聲[屑薛同用] 絕切
 25,26 春色朝朝異, 邊庭羽書至.
 27,28 都護新封萬里侯, 將軍稍定三邊地.
 29,30 長猶銜掃雲色, 寶刀尚擁干星氣. 止攝 去聲[志至未同用] 異至地氣
 31,32 昨夜祁連驛使還, 征夫猶住雁門關.
 33,34 君度山川成白首, 應知歲序歇紅顏. 山攝 平聲 [刪獨用] 還關顏
 35,36 紅顏一別成胡越, 夫壻連延限城闕.
 37,38 羌笛橫吹隴路風, 戎衣直照關山月.
 39,40 春色徒盈望, 春悲殊未歇. 山攝 入聲[月獨用] 越闕月歇

- 1,2 집 떠난 떠돌이 바깥양반 때문에, 독수공방 처자는 歌妓가 되었네.
 3,4 바깥양반 다시 더 멀리 끝없이 떠나고, 저는 봄잠 중에 임 생각 병이 났네.
 5,6 깊숙한 부녀자의 방에서 어찌 머나먼 변방요새를 알 수 있으리.
 7,8 변방요새는 玉門關 옆으로 이어지고, 구름사이 소식은 물을 수 없네.
 9,10 葱山은 웅장하게 金河의 北에 있어, 안개 속 어슴푸레 검은 빛을 띠네.
 11,12 역마가 幽州와 并州에서 홀연히 와서, 낭군에게 보낼 봄옷 만 리길을 전하네.
 13,14 서쪽 龍沙에 봄풀이 곳곳에 돌아나고, 바다같이 아득한 사막에 봄구름 일어나네.
 15,16 疏勒城의 井泉은 거울칠 샘이 마르고, 燕山의 봉화는 온밤을 밝히리.
 17,18 河原郡 가는 길이 멀고멀다는 말 들었는데, 낭군님들 고행 길을 누가 알려주리오.

- 19,20 그대 가는 변방에는 이슬서리 많고, 멋진 봄날 高臺에는 자옥한 연무 생각나네.
 21,22 아지랑이 피어올라 合歡枝에 걸려 있고, 떨어지는 꽃잎은 相思樹를 홀로 감도네.
 23,24 임 오시길 비는 봄 마음 갈수록 절망적이고, 깊숙한 규방의 이별 애절하여라.
 25,26 봄빛이 아침마다 달라지고, 변방의 긴급한 軍書가 오네.
 27,28 도호는 만 리 밖 제후 새로이 봉하고, 장군은 변방 땅을 평정하네.
 29,30 군 깃발은 변방 구름 빛 여전히 머금고 있고, 寶刀는 天星 기운 아직도 품고 있네.
 31,32 잊저녀 기련산의 역사는 돌아왔건만, 부역 간 낭군은 아직도 안문관에 머물고 있네.
 33,34 그대는 山川을 넘으며 백발 되었으니, 세월의 흐름에 상해버린 얼굴을 응당 알겠지.
 35,36 흥안은 한 번 이별에 멀리 떨어지고, 낭군은 쪽 이어진 성궐로 가로막혀 버리네.
 37,38 羌笛 옆으로 불어서 隴路의 바람에 싣고, 군복은 關隘山川의 달을 그대로 비추네.
 39,40 봄날의 빛같은 눈에 가득한데 봄날의 슬픔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네.

본 단락에서는 邊塞에서 行役으로 고통 받는 征夫와 그의 귀향을 바라는 閨婦의 끝없는 그리움을 묘사하였는데, 앞 단락의 화사한 봄날 장안과 그 안의 즐겁고 화려한 생활습속을 묘사한 화면과는 분명하고 강렬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작자는 이러한 대비를 통하여 당시 조정의 군사 확장정책에 대한 불만과 이러한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征夫閨婦의 生離死別에 대한 측은함을 충분히 토로한 것이다. 이와같은 蕩子從軍과 倡婦閨怨은 당시에 유행하던 제제이지만¹²⁾, 庾信의 〈春賦〉, 梁簡文帝的 〈晚春賦〉, 元帝의 〈春賦〉등 동일한 제제의 이전 작품들과 비교해보면, 왕발의 〈春思賦〉와 같이 봄의 묘사를 통하여 현실적인 내용을 드러낸 작품은 없다. 왕

12) 郭維森·許結의 앞의 책, 378쪽 참조.

발의 부가典雅한 가운데 雄壯之氣를 내포하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하겠다.

(4)

- 1,2 復聞天子幸關東, 馳道煙塵萬里紅.
 3,4 析羽搖初日, 繁笳思曉風.
 5,6 後騎猶分長樂館, 前旌已映洛陽宮. 通攝 平聲 [東獨用] 東紅風宮
 7,8 洛陽宮城紛合沓, 離房別殿花周匝. 咸攝 入聲 [合獨用] 沓匝
 9,10 河陽別舍抵長河, 丹輪紺幟相經過.
 11,12 戚里繁珠翠, 中閨盛綺羅.
 13,14 鳳移金谷舞, 鶯引石城歌. 果攝 平聲 [歌戈同用] 河過羅歌
 15,16 向夕天津洛橋暮, 爭驅紫燕黃牛度.
 17,18 閒居伊水園, 舊宅邙山路.
 19,20 武子新布金錢埽, 季倫欲碎珊瑚樹. 遇攝 去聲 [遇暮同用] 暮度路樹
 21,22 復有西壩春霧寡, 更值南津春意寫.
 23,24 入金市而乘羊, 出銅街而試馬;
 25,26 葉犯露而爭密, 花牽風而亂下.
 27,28 錦幃縈山, 羅帷照野;
 29,30 司空令尹之博物, 二陸三張之文雅.
 31,32 新年柏葉之樽, 上巳蘭英之壘. 假攝 上聲 [馬獨用] 寡寫馬下野雅壘
 33,34 春來併是春, 何箇兩違秦?

- 1,2 또 듣기에 천자가 낙양에 납시니, 한길에는 먼지 날려 아득하니 붉네.
 3,4 깃발은 아침 햇살에 흔들리고, 낮은 곡조 피리소리 쓸쓸하니 새벽바람 같네.
 5,6 후발대는 지금 막 서안 장락궁을 떠나고, 선발대의 깃발은 이미 낙양 궁에 빛나네.
 7,8 낙양 궁성에는 깃발들 겹겹이고, 이방 별전에는 화환이 둘러져 있어라.
 9,10 하양현 별장은 황하에 닿아 있고, 화려한 수레와 푸른 휘장 수레가 함께 지나가네.
 11,12 천자의 외척은 많은 진주비취 지니고, 후궁의 궁실에는 멋진 비단옷 가득하네.

- 13,14 아름다운 무희는 금곡무 춤추고, 피꼬리 같은 가녀는 석성악의 노래 부르네.
 15,16 저녁에 낙양의 천진교로 해가 저물면, 준마와 화려한 수레는 다투어 건너네.
 17,18 한가로이 이수원에 머물다가, 죽으면 북망산에 장사지내네.
 19,20 왕무자는 돈으로 마구 울타리 쌓고, 썩 부자 석계륜은 산호나무 부수고자 했네.
 21,22 또한 서성에 봄 안개 적어지고, 다시 남진에 봄빛이 흘러가버리네.
 23,24 양 수레 타고 변화가인 금시로 들어가고, 동타가를 나와서 말을 타보네.
 25,26 나뭇잎은 이슬을 머금은 채 다투어 돌아나고, 꽃은 바람에 이끌려 우수수 떨어지네.
 27,28 석계륜이 만들었던 화려한 천막은 온 산을 빛내고, 화려한 휘장은 들판을 비추네.
 29,30 사공과 영운 같은 박학다식함이고, 二陸三張 같은 문장의 빼어남이라.
 31,32 새해 맞아 邪氣 쫓는 백엽주 마시고, 삼월 上巳日 제양 물리치는 난화주 마신다.
 33,34 봄 오면 곳곳에 봄기운 똑같이 아름다운데, 秦地 장안과 어찌 크게 다를 수 있으리?

이 단락은 작자의 자신의 시선을 邊塞에서 다시 中原으로 돌려서, 誇張의 필치로 東都 洛陽의 봄 경치를 묘사한 것으로, 이것을 다시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제1句에서 제6句까지는 천자가 장안에서 낙양을 순행하는 웅장한 氣勢와 盛況을 묘사한 것으로, 행차 시에 일어나는 끝없는 먼지와 현란한 것발, 그리고 악대의 드높은 음악소리에 위풍당당한 수행 人馬는 장락궁에서 낙양궁까지 이어져 있다. 두 번째는 제7句에서 제18句까지로 낙양 이궁별전의 웅대한 장관과 낙양의 풍부한 산물, 곳곳에 진귀한 보석과 비단에 둘러싸여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세 번째는 제19句에서 마지막까지로 《世說新語·汰侈篇》중의 王武子·石崇·王愷의 고사를 사용하여 낙양의 부유함과 호화스러움을 묘사하였다. 이것은 상류사회

를 묘사한 한 폭의 풍속화이다. 이어서 강남 하류층 사회의 생활모습이 이어진다.

(5)

- 1,2 忽逢江外客, 復憶江南春.
 3,4 羅衣乘北渚, 錦袖出東隣. 遇攝 平聲[眞諄同用] 春秦春隣
 5,6 江邊小婦無形迹, 特怨狂夫事行役.
 7,8 鳳凰山上花無數, 鸚鵡洲中草如積. 假攝 入聲[昔獨用] 迹役積
 9,10 春江澹容與, 春期無處所.
 11,12 春水春魚樂, 春汀春雁舉.
 13,14 君道玉門關, 如何金陵渚. 遇攝 上聲[語獨用] 與所舉渚
 15,16 爲問逐春人, 年光幾處新?
 17,18 何年春不至, 何地不宜春.
 19,20 亦有當春逢遠客, 亦有當春別故人.
 21,22 風物雖同候, 悲歡各異倫. 臻攝 平聲[眞諄同用] 人新春人倫

- 1,2 홀연히 강남의 나그네 만나니, 다시 강남의 봄이 그리워지네.
 3,4 얇은 명주옷의 미녀는 북저에서 노닐고, 비단 저고리의 미녀는 동련에서 나오네.
 5,6 강변의 소婦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낭군의 멀리 부역 감을 원망하네.
 7,8 황산에는 꽃이 무수히 피었고, 앵무주에는 풀이 무성하네.
 9,10 봄 강물 조용히 흘러, 봄 계절 머물지 않는 곳 없으라.
 11,12 봄물에는 물고기가 노닐고, 봄 물가에는 봄 기러기 날아가네.
 13,14 그대는 옥문관에 있다하니, 금릉 강가에서 봄을 어찌 홀로 지내는지.
 15,16 봄을 찾는 사람에게 묻노니, 새해의 봄 경치 어느 곳이 좋으리?
 17,18 어느 해에 봄이 오지 않고, 어느 땅에 봄이 펼쳐지지 않으리오.
 19,20 봄날에 멀리서 찾아온 나그네를 만나기도 하고, 봄날에 친한 친구와 이별도 한다.
 21,22 풍물은 비록 같은 모양이지만, 슬픔과 기쁨은 각각 다른 것이네.

온화한 기후에 온갖 꽃이 만발하고 초목이 무성한 강남의 봄과 蜀川·長

安·洛陽의 봄은 서로 크게 다르다. 특히 “龍沙春草遍, 瀚海春雲生(서쪽 龍沙에 봄풀이 곳곳에 돋아나고, 바다같이 아득한 사막에 봄 구름 일어나네)”의 邊塞 지역의 봄과는 확연한 구별이 있다. 작자는 섬세하고 예리한 관찰로 부드러운 강남의 봄 특징을 묘사하였다.

먼저 “雲鬢豐艷, 蛾眉皓齒, 顏盛色茂, 景曜光起(구름 같은 머릿결은 무성하니 아름답고, 두 눈썹은 가늘게 동그랗고 치아는 희디희며, 얼굴은 발그레하니 촉촉하여 그 광채가 사방에 퍼진다)”(司馬相如〈美人賦〉)의 東隣女같이 아름다운 미녀를 묘사하고, 이어서 사람을 황홀하게 하는 강남의 경치 - 수많은 꽃과 초목 그리고 봄 강물(春江)·봄 물고기(春魚)·봄 물가(春汀)·봄 기러기(春雁) 등을 묘사하였고, 여기에 의거하여 “爲問逐春人, 年光幾處新?”의 哲學的인 사색을 이끌어낸 다음 “亦有當春逢遠客, 亦有當春別故人.”의 游子思婦의 정감을 표현하였다.

王勃은 남에서 북으로 또 북에서 남으로, 蜀地·長安·邊塞·洛陽·江南의 다양한 봄 경치를 묘사하였고, 그 사이에 蕩子從軍, 倡婦閨怨 등의 내용을 삽입하였는데, 그 취지는 마지막 단락에서 나타내고 있다.

(6)

1 歸去春山態開放

- 2,3 蕙畹蘭皋行可望, 何爲悠悠坐惆悵? 假攝 去聲[漾獨用] 放望悵
 4,5 比來作客住臨邛, 春風春日自相逢,
 6,7 石鏡岩前花屢密, 玉輪江上葉頻濃,
 8,9 高平瀾岸三千里, 少道梁山一萬重,
 10,11 自有春花煎別思, 無勞春鏡照愁容. 通攝 平聲[鍾獨用] 邛逢濃重容
 12,13 盛年眇眇辭鄉國, 長路遙遙不可極.
 14,15 形隨朗月驟東西, 思逐浮雲幾南北
 16,17 春蛺參差命儔侶, 春鶯綿蠻思羽翼.
 18,19 余復何爲此, 方春長歎息. 曾攝 入聲[職德同用] 國極北翼息
 20,21 會當一舉絕風塵, 翠蓋朱軒臨上春.
 22,23 朝升玉署調天紀, 夕憩金闈奉帝綸.
 24,25 長卿未達終希達, 曲逆長貧豈剩貧.

26,27 年年送春應未盡, 一旦逢春自有_人. 遇播 平聲 [眞諄同用] 塵春綸貧人

- 1 봄 산으로 돌아가 마음껏 한가롭게 노닐고,
 2,3 향초 들관 蘭花 연못가를 거닐며 멀리 바라보니, 어찌 가만히 시름에
 잠겨 슬퍼하리오.
 4,5 최근 떠돌며 사마상여의 사랑얘기 깃들은 임공에 머무니, 봄바람 봄날
 에 서로 만나네.
 6,7 거울 같은 돌 산마루 앞 꽃은 가득하고, 달빛 빛나는 강물 위 나뭇잎
 은 짙어지네.
 8,9 고평 과안은 삼천리이고, 소도 양산은 일만 겹이라.
 10,11 홀로 핀 봄꽃은 이별의 그리움에 애 태우고, 한가로운 봄 거울은 근
 심 얼굴 비추네.
 12,13 소년시절 아득하니 고향 떠나, 긴 여정 멀고멀어 끝 간 곳 없네.
 14,15 몸은 朗月 따라 동서를 달리고, 생각은 浮雲 쫓아 남북에 이른다네.
 16,17 봄 나비 이리저리 훨훨 날아 짝을 부르고, 봄 피꼬리 피꼴 지저귀며
 짝을 그리워하네.
 18,19 내 또한 어찌 이곳에서, 봄을 맞아 길게 탄식하고.
 20,21 한번 높이 날면 속세를 뛰어 넘고, 깃털 장식 화려한 수레는 이른
 봄에 이르네.
 22,23 아침에 옥서에 올라 천기 조절하고, 저녁에는 금규에서 쉬며 황제의
 뜻을 받드네.
 24,25 사마상여 벼슬 전까지 끝내 간절했고, 진평의 오랜 가난 어찌 끝까
 지 그러했나.
 26,27 해마다 봄 보내도 봄은 끝나지 않는데, 어느 봄날 순조롭고 거침없
 는 한 사람 있다네.

위와 같이 王勃은 마지막 단락에서 자신의 심리세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결말을 이루고 있다. 司馬相如가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臨邛에서 머
 물렀던 典故를 활용한 것을 보면, 王勃이 王府에서 축출된 것에 대한 불
 만의 심정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王勃은 공명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강
 한 청년으로, 그는 결코 정치적 앞날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울분을 토로하여 푸념을 늘어 논 뒤에, 司馬相如나 陳平이 不遇한 시기를 딛고 일어섰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이라 믿으며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이 같은 복잡하고 모순된 심리상태와 희망은 바로 序文에서 “撫窮賤而惜光陰, 懷功名而悲歲月(窮賤을 위로하고 아름다운 광음을 애석해하며, 功名の 마음을 품고 세월의 흐름을 가슴아파하다)”라고 표현한 그대로이다.

이상과 같이 <春思賦>의 본문은 모두 6단락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살필 수 있다. 본문의 첫 단락에서는 먼저 8句를 사용하여 賦題의 요지를 밝히고, 이어서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나그네로 떠돌고 있던 蜀地 早春의 풍경을 묘사한 뒤에, 다시 長安·邊塞·洛陽·江南 등의 다양한 봄 풍경을 묘사한 다음, 마지막 단락에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어 결말을 짓고 있다. 전편의 문장구조는 짜임새와 조리가 있고 層次가 분명하다.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단락 구분	내 용		春思
1	蜀地春景	賦題의 “春思”의 요지와 蜀地의 早春 풍경	悲
2	長安春景	화려한 장안의 풍경과 풍속	喜
3	邊塞春景	征夫閨婦의 봄 풍경	悲
4	洛陽春景	부유한 낙양과 호사스런 상류사회의 봄 풍경	喜
5	江南春景	강남 하류층의 봄 풍경	悲
6	作者의 취지	懷才不遇와 功名不就 현실극복의 이상 추구	希望

위의 도표에서도 살필 수 있듯이, 全篇은 각 지역의 서로 다른 春色과 春思, 즉 “喜”와 “悲”의 강렬한 대비를 통하여 왕발 자신의 조정에 대한 불만과 울분을 충분히 토로하였고, 마지막으로 현실극복의 정치적 희망을 밝히고 있다.

IV. 수사형식의 특색

문학창작은 언제나 전통의 계승과 함께 끊임없는 변화 즉 혁신을 염두에 둔다. 왜냐하면 계승이 없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가 성장하기 어려운 것과 같고, 혁신이 없는 것은 연못에 고인 물이 언젠가는 말라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春思賦>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내용구조가 웅장한 抒情의 장편 賦작품으로, 왕발은 수사형식의 기교에서 漢賦와 駢賦의 부분적 특징을 계승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을 모색했다.

주로 제왕의 생활과 국가의 중대사건이 내용이었던 先秦 兩漢의 大賦는 鋪陳排比 표현기법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이는 여러 측면에서 차례로 사물의 각종 정황을 형용하여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여러 어휘의 중복을 마다하지 않는 표현기법이다. 孫梅가 《四六叢話》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것을 말한다.

兩漢이래 이러한 풍조가 흥성하기 시작하여 文人學士들이 오로지 여기에 온힘을 다하여 부 중에 한 개의 사물을 묘사하면 이 사물의 모든 情狀을 다 살펴보았다. 하나의 도성을 논술하면 한 朝代의 연혁을 모두 포함하여, 붓을 놓고 반복 음송해야 비로써 한 자를 완성하였다. (兩漢以來, 斯道爲盛, 承學之士, 專精於此, 賦一物則究此物之情狀, 論一都則包一朝之沿革 輟翰傳誦, 勒成一子.)¹³⁾

<春思賦>에서 봄을 묘사함에, 먼저 자신이 몸을 기탁하고 있는 蜀地의 봄에서부터 시작하여 장안에 이르기까지, 다시 장안의 봄에서부터 邊塞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끝으로 洛陽의 봄에서부터 江南에 이르기까지 봄의 여러 자연의 모습과 사람의 情態·사회풍물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하여 나열한 것은 漢賦로부터 계승된 鋪陳排比의 표현기법의 구현이다.

13) 孫梅, 《四六叢話》, 世界書局, 1970, 61쪽.

또한 李調元 《賦話》에서 “音調諧和, 屬對密切(音節이 조화롭고, 對句가 精密하다)”¹⁴⁾, 劉熙載는 《藝概》에서 “音緒綿邈, 騷人清深(뜻의 실마리가 아득히 이어지며, 騷를 짓는 사람은 맑고 깊다)”¹⁵⁾라고 말한 六朝 駢賦의 특징을 〈春思賦〉곳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春思賦〉에 계승과 또 다른 발전이 있는데 내용과 형식에서 새로운 실험을 시도한 것이다. 初唐 시대의 여러 색채를 융합하여 생동적인 형상과 새로운 境地를 창조해냈으며 결국은, 선명한 개성과 독특한 풍격을 형성했다. 그 구체적 표현은 다방면으로 그 특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먼저 전체 부의 내용 속에 작가의 情感과 형식적인 수사기교를 서로 잘 보충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앞에서 내용구조를 살펴본 바와 같이 한 화면의 단락마다 먼저 “春”(景)의 묘사에서 “思”(情)가 생겨나고 계속하여, “春”에 “思”를 기탁하면서 마지막에는, “春”“思”가 서로 융합하여 질서정연한 예술적 境地를 형성하였다. 다양한 春景春色 중에서 작가 자신의 신세에 대한 느낌과 이상의 추구를 강렬하게 표현하였다.

또 다른 것으로는 고사를 인용하는 用典에서도 그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春思賦〉는 기본적으로 이전의 “文章殆同書鈔(시문창작이 거의 책을 그대로 베끼는 것과 같다)”(鍾嶸 《詩品·序》¹⁶⁾) 혹은 “緝事比類非對不發, 博物可嘉, 職成拘制(사물을 서술함에 건주기를 좋아하여 문구는 반드시 대구를 이뤄야 하는데, 비록 사물묘사가 광대하여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대비의 구속을 받는다)”(《南齊書·文學傳論》¹⁷⁾) 등 駢賦의 폐단을 피했다. 賦 전체는 사건과 사물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묘사하며 事典을 사용하지 않았다. “霜前柳葉銜霜翠, 雪裏梅花犯雪妍. 霜前雪裏知春早, 看柳看梅覺春好.”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설사 典故를 사용하더라도 문장의 흐름에 적합하고 난삽하지 않은 것을 인용하였다. 즉:

14) 李調元, 《賦話》卷一, 廣文書局, 1971, 8쪽.

15) 劉熙載, 《藝概》卷三〈賦概〉, 廣文書局, 1974, 4쪽.

16) 穆克宏, 《魏晉南北朝文論全編》, 江蘇教育出版社, 1996, 227쪽.

17) 같은 책, 471쪽.

長卿未達終希達, 曲逆長貧豈剩貧.
年年送春應未盡, 一旦逢春自有入.

司馬相如와 陳平의 전고를 사용한 것으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임과 동시에 賦文의 정서와 격조에 완전히 합치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과 형식 방면의 특색이외에도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以詩爲賦’ 혹은 ‘詩賦合流’의 특색을 들 수가 있다.

賦는 先秦에서 형성된 이후로 漢에 이르기 까지, 기본적으로는 單行 散文句이고, 압운도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았다. 즉 소위 “古賦”가 이것이다. 六朝이후로 賦는 駢儷化의 경향이 나타나서 句式이 4·6言위주로 對句에 치중하고 音律의 조화를 피하는 등 소위 “駢賦”를 형성하였다. 〈春思賦〉는 줄곧 변부라고 여겨져 왔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육조 駢賦의 부분적인 계승과 함께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였다. 분명히 드러난 것은 章法·句法·字詞의 수사 형식적인 측면에서 詩歌 그중에서도 악부민가의 기교를 흡수하고 융합하여, 일종의 ‘以詩爲賦’ 혹은 ‘詩賦合流’의 새로운 체제를 만든 것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蜀川風候隔秦川, 今年節物異常年.
霜前柳葉銜霜翠, 雪裏梅花犯雪妍.
霜前雪裏知春早, 看柳看梅覺春好.

野何樹而無花, 水何堤而無草.

蜀地의 봄을 묘사한 첫 단락의 5·7言의 詩句로,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王勃은 5·7言 시구의 운용뿐만 아니라 “霜”“雪”을 3번 중복하고 “柳”“梅”, “川”“年”, “春”“看”, “何”“無”를 각각 2번씩 중복하는 字詞의 반복적 표현을 통하여 음악적인 효과를 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春思賦〉의 특징에 대하여 高木重俊은 그의 또 다른 문장 〈王勃「春思賦」と盧·駱の七言長篇詩〉에서 본문 중에 5·7言의 詩句로써 字詞의 반복적 표현부분을 자세히

분석하여 나열했는데,¹⁸⁾ 長安의 봄을 묘사한 두 번째 단락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忽逢邊候改, 遙憶帝鄉春.
 帝鄉迢遼關可裏, 神臯欲暮風煙起.

.....
 玉臺金闕紛相望, 千門萬戶遙相似.
 昭陽殿裏報春歸, 未央臺上看春暉.

.....
 長安路狹遠長安, 公子春來不厭看.

.....
 簞蓋臨平樂, 迴笳出上蘭.
 上蘭經鄠杜, 揮鞭日將暮.
 白馬新臨御溝道, 青牛近出章臺路.
 章臺接建章, 垂柳復垂楊.

.....
 傷紫陌之春度, 惜青樓之望遠.
 紫陌青樓照月華, 珠帷繡帳七香車.

여기에서는 “相”·“春”·“垂”과 같이 단음절의 중복도 있지만, “帝鄉”·“長安”·“上蘭”·“章臺”·“紫陌”·“青樓”와 같은 명사성 복음절어의 중복도 있어 <春思賦> 수사 형식기교의 또 다른 하나의 특색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특히 “長安”을 제외한 나머지는 換韻하면서 앞 구절의 마지막 두 자를 새 구절의 첫 머리로 삼아 전체를 하나로 묶고 음률의 조화를 도모하는 역할

18) 高木重俊, <王勃「春思賦」と盧·駱の七言長篇詩>(《集刊東洋學》 47, 1982年5月), 37-38쪽 참조.

高木重俊은 본 논문에서 5言과 7言 詩句의 對句와 字詞의 반복적 기교에 대한 분석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平仄格律에 대한 句法의 律化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王勃의 <春思賦>를 비롯한 盧照隣과 駱賓王의 長篇 歌行은 南北朝와 隋代의 歌行과는 달리 구법의 율화가 진행되어 律詩와 絶句 등 근체시의 형성과 발전에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석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것이다.

을 하고 있다. “帝鄉”은 蜀地의 春景을 묘사한 첫 단락에 이어서 長安의 春景春色을 묘사하는 두 번째 단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두 단락을 하나로 엮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 단락 안에서 “上蘭”·“章臺”와 “紫陌”·“青樓”는 장안의 다양한 자연경물과 생활풍속·인사활동 등의 내용을 긴밀하게 묶어 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盧照隣·駱賓王의 장편 七言歌行詩에서 주로 사용되는 蟬聯法으로 시가의 음률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며, 시가의 서정성을 더욱 늘리는 역할을 한다.¹⁹⁾ 셋째 단락과 넷째 단락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因狂夫之蕩子，成賤妾之倡家。
 狂夫去去無窮已，賤妾春春未起。
 自有蘭閨數十重，安知榆塞三千里。
 榆塞連延玉關側，雲間沈沈不可識。

 君度山川成白首，應知歲序歇紅顏。
 紅顏一別成胡越，夫婿連延限城關。

 後騎猶分長樂館，前旌已映洛陽宮。
 洛陽宮城紛合沓，離房別殿花周匝。

“賤妾”·“榆塞”·“紅顏”·“洛陽宮” 등도 내용의 긴밀성과 서정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전체의 음악성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春思賦〉전편에 걸쳐서 “去去”·“沈沈”·“隱隱”·“蒼蒼”·“遠遠”·“行行”·“步步”·“年年”·“朝朝”·“眇眇”·“遙遙” 등과 같이 대량의 疊字를 5言과 7言의 詩句 속에서 활용하여 작품 전체 음률의 조화를 꾀하였다.

〈春思賦〉 본문은 모두 204句인데, 7言句가 115句, 5言句가 51句가 있고, 駢賦 句法의 특징인 4言과 6言句는 단지 38句가 있을 뿐으로 5·7言

19) 薛天緯, 《唐代歌行論》, 人民文學出版社, 2006, 105쪽.

詩句가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5언 혹은 7언구는 서로 對句가 될 뿐만 아니라, 4구와 6구 혹은 8구를 연용하여 그 구성이 상당이 짜임새가 있다. 用韻도 4句—轉, 6句—轉, 8句—轉 혹은 12句—轉까지 모두 37번 換韻하면서 平仄韻이 교대로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을 예로 들면,

(1)

若夫年臨九域, 韶光四極 ~ 感大運之盈虛, 見長河之紆直.
(총8구, 仄聲 職德韻)

蜀川風候隔秦川, 今年節物異常年. ~ 霜前柳葉銜霜翠, 雪裏梅花犯雪妍.
(총4구, 平聲 先仙韻)

霜前雪裏知春早, 看柳看梅覺春好. ~ 野何樹而無花, 水何堤而無草.
(총8구, 仄聲 篠韻)

於是僕木浪人, 平生自淪, ~ 忽逢邊候改, 遙憶帝鄉春.
(총8구, 平聲 眞諄韻)

(2)

帝鄉迢遞關河裏, 神臯欲暮風煙起. ~ 玉臺金闕紛相望, 千門萬戶遙相似.
(총6구, 仄聲 旨止韻)

昭陽殿裏報春歸, 未央臺上看春暉. ~ 銀蠶吐絲猶未暖, 金燕銜泥試學飛.
(총10구, 平聲 微韻)

妾本幽閨學歌舞, 寧知漢代多巡撫. ~ 見原野之秀芳, 憶山河之邃古.
(총8구, 仄聲 慶姥韻)

長安路狹遠長安, 公子春來不厭看. ~ 聳蓋臨平樂, 迴笳出上蘭.
(총6구, 平聲 寒韻)

上蘭經鄂杜, 揮鞭日將暮. ~ 白馬新臨御溝道, 青牛近出章臺路.
(총4구, 仄聲 姥暮韻)

章臺接建章, 垂柳復垂楊. ~ 草開馳馬埒, 花滿鬪鷄場.
(총4구, 平聲 陽韻)

南隣少婦多妖婉, 北里王孫駐行幟. ~ 傷紫陌之春度, 惜青樓之望遠.
(총6구, 仄聲 阮韻)

紫陌青樓照月華, 珠帷黼帳七香車, ~行行避葉, 步步看花.

(총8구, 平聲 麻韻)

平仄韻 교대로 환운하면서 환운하는 첫 구는 반드시 압운하고 있다. 그러나 셋째 단락에서는 “平2句,仄4句,仄4句,平8句,仄4句,仄2句,仄6句,平4句,仄6句”로 환운하면서 3번 仄仄韻으로 환운하였고, 넷째 단락에서 “平6句,仄2句,平6句,仄6句,仄12句”와 다섯째 단락에서는 “平4句,仄4句,仄6句,平8句”로, 각각 1번씩 仄仄韻으로 환운하였다. 마지막 여섯째 단락은 “仄3句,平8句,仄8句,平8句”로 平仄韻 교대로 환운하였다. 셋째 단락부터 마지막 여섯째 단락까지 平仄韻 교대로 환운하거나 혹은 仄仄韻으로 환운하더라도 환운하는 첫 구는 반드시 압운하였다. 이와 같이 전편에 걸쳐 7言詩句 위주의 구법과 平仄 및 押韻法은 歌行詩篇과 큰 차이가 없어, 明 王世貞은 그의 《藝苑卮言》卷四에서 “子安諸賦, 皆歌行也. 爲歌行則佳, 爲賦則醜(왕발의 모든 부는 전부 부가 아니라 가행시가로 할 수 있다. 왕발의 부는 만일 가행체 시가로 말하자면 비교적 좋은 시이지만, 부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평범한 것 같다.)”²⁰⁾라고 언급할 정도이다. 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부분은 초기의 근체시에 접근한 것도 있다. 먼저 7언구를 보면,

昨夜祁連驛使還, 征夫猶住雁門關.

●●○○●●◎韻 ○○○●●○○韻

20) 王世貞著 羅仲鼎校注, 《藝苑卮言校注》, 齊魯書社出版社, 1992, 159쪽.

王勃 賦작품 속의 가행시가 성분 대한 王世貞의 언급은 정확한 것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王勃의 賦는 詩처럼 그렇게 우수하지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李夢陽·何景明이 “唐無賦(당에는 부가 없다)”·胡應麟이 “騷盛於楚, 衰於漢, 而亡於魏; 賦盛於漢, 衰於魏, 而亡於唐(騷는 楚에서 흥성하여 漢에서 쇠미하였고 魏에서 망하였다. 賦는 漢에서 흥성하여 魏에서 쇠미하였고 唐에서 망하였다)”라고 주장하는 明代의 복고주의 사조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漢賦를 중심으로 하여 唐賦의 변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白承錫, <초당부의 발흥에 대하여>, 《중어중문학》 21권, 1997년, 409-410쪽 참조.)

君度山川成白首,	應知歲序歇紅顏.
○●○○○●●	○○●●●○○○韻
紅顏一別成胡越,	夫壻連延限城闕.
○○●●○○○韻	○●○○●○○○韻
羌笛橫吹隴路風,	戎衣直照關山月.
○●○○●●●○	○○●●○○○韻

셋째 단락의 31에서 38까지의 구절로, 思婦의 복잡한 심리상태와 邊塞의 蒼涼한 풍경을 묘사한 내용인데 선명한 형상화와 情景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진 것이 7言 근체시와 비슷하다. 또한 二四不同·二六對·七五不同과 下三連을 쓰지 않은 平仄法이나 압운법을 보더라도 7언 근체시에 근사함을 살필 수 있다. 다시 5언구를 보면,

爲問逐春人,	年光幾處新?
○●●○○○韻	○○●●●○○韻
何年春不至,	何地不宜春.
○○○●●	○●●○○○韻

다섯째 단락의 15에서 18까지의 구절로, 이것은 한편의 5言 絶句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句法의 律化는 같은 시기에 번창하기 시작하는 律詩와 絶句 등 근체시에 영향을 주었음은 살필 수 있다. 이러한 ‘以詩爲賦’로 賦文중에 5言句과 7言句를 섞는 현상은 비록 徐陵의 〈鴛鴦賦〉, 庾信의 〈春賦〉에서와 같이 남북조 시기 이미 출현했으나 보편적으로는 운용하지 못하여 詩句가 점유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許槿은 그의 《六朝文絮箋註》에서 庾信의 〈春賦〉가 王勃을 비롯한 초당사걸에게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했는데,²¹⁾ 그러나 庾信〈春賦〉는 賦文이 모두 62구로 7언구가 14구, 5언구가 10구로 5언과 7언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불과하여,²²⁾

21) 許槿, 《六朝文絮箋註》, 育民出版社, 1974, 63쪽.

22) 許東海, 《庾信生平及其賦之研究》, 文史哲出版社, 1984, 80쪽.

〈春思賦〉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唐賦의 새로운 면모를 개척하였고 詩에서 賦로, 賦에서 다시 詩로 복귀하는 역사적인 발전을 구현하였다. 동시에 唐代의 5언·7언 古詩와 5언·7언 近體詩의 창작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다.²³⁾

V. 나오는 글

이상으로 먼저 〈춘사부〉의 창작동기와 심리의 고찰을 통해 〈춘사부〉는 단순한 봄의 찬미가 아니라 자신의 슬픔과 불만 그리고 희망의 정감을 다양한 春景春色の 묘사에 기탁하려 했음을 살펴보고, 이어서 全篇을 6단락으로 나누어 그 내부구조와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보았으며 끝으로, 〈춘사부〉의 수사형식의 특색에 대하여 분석해보았는데 이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王勃은 〈春思賦〉의 내용구조 방면에서 탐색과 創新의 정신을 구현했다. 자기의 의지와는 달리 蜀地에서 나그네로 떠돌던 왕발은 長安·邊塞·洛陽·江南 등 다양한 春景의 묘사 속에 春思 즉 자신의 정감을 기탁한 것인데 長安과 洛陽의 화려하고 호사스런 春景 속의 春思인 “喜”와 邊塞와 江南의 春景 속 蕩子倡婦와 하층민의 春思인 “悲”의 강렬한 대비를 통하여 왕발 자신의 조정에 대한 불만과 울분을 충분히 토로한 것이다. 이것은 “體物”과 “寫志”를 결합시켜 景物을 묘사하는 가운데 개인의 身世感慨와 理想追求의 抒情性을 드러낸 것인데, 이전 시대의 동일한 제체의 작품인 庾信의 〈春賦〉, 梁簡文帝的 〈晚春賦〉, 元帝의 〈春賦〉 등과는 다른 것으로 唐賦의 題材 開拓과 主題의 심화에 先聲을 이뤘다.

23) 이 같은 ‘以詩爲賦’의 현상은 王勃뿐만 아니고 駱賓王·楊炯·盧照隣 등 초당사걸의 사부창작에서도 시도한 것으로 이런 시도는 六朝이후 유약한 風潮에 충격을 주어 唐賦와 唐詩가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데 공헌을 한 것이다. (白承錫, 《駱賓王賦研究》, 《中國語文學》第49輯, 2007년6월, 276쪽 참조)

둘째, 왕발은 〈春思賦〉 수사형식의 기교에서 漢賦와 駢賦의 부분적 특징을 계승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을 모색했다. 蜀地에서부터 마지막 江南에 이르기까지 春景의 모습과 사람의 情態·사회풍물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하여 나열한 것은 漢賦의 鋪陳排比 전통의 계승이며, 음률의 조화와 對句의 정밀함은 駢賦의 특징을 답습한 것이지만, 用典 方面에서는 문장의 흐름에 적합하고 난삽하지 않은 전고를 사용하여 駢賦의 폐단을 피했다. 또한 字詞의 반복적 표현과 疊字의 활용으로 작품 전체 음률의 조화를 꾀했다. 用韻도 4句一轉, 6句一轉, 8句一轉 혹은 12句一轉까지 모두 37번 換韻하였는데, 5번의 仄仄韻 換韻을 제외하고 모두 平仄韻 교대로 환운하여 長篇歌行詩와 차이가 없을 정도이고, 어떤 부분은 초기의 근체시에 접근한 것도 있다. 무엇보다 대량으로 5·7언구를 흡수하고 운용하여 ‘以詩爲賦’와 ‘詩賦合流’의 새로운 국면을 창조하였다. 이 때문에, 〈春思賦〉는 중국 賦體文學發展史에 承前啓後의 의미를 지닌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References >

1. Baik Seungsuk. "A study on the Rise of Early Tang Fu". *Th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21, (1997).
2. Baik Seungsuk. "A study on Luobinwang's Fu".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49, (2007).
3. Bao Mingwei. *A Study on the Rhyme of Poem and Prose in Tang Dynasty*. Jiangsu Ancient Books Press, 1990.
4. Jiang Jingyi Annotation. *Wang Zi'an JiZhu*. Shanghai Ancient Books Press, 1995.
5. Li Tiaoyuan. *FuHua*. Guangwen Press, 1971.
6. Liu Xizai. *YiGai*, Guangwen Press, 1974.

7. Luo Zhongding Annotation. *Annotation of Yiyuanzhiyan*. Qilu Press, 1992.
8. Mu Kehong. *WeijinNanbei Chao Wenlun Quanbian*. Jiangsu Education Press, 1996.
9. *Old Book of Tang*. The Publishing House of the Chinese Dictionary, 2004.
10. Shen Huile, Qian Weikang. *Chutangsjie he Chenzi'ang*. Shanghai Ancient Books Press, 1987.
11. *Sikuquanshu concise directory*. Heluo Book Press, 1975.
12. Sun Mei. *SiLiu CongHua*. ShiJie Press, 1970.
13. Takagi Shigetoshi. "A Study of Wang-Po(王勃)'s Life and his Literature". *Bulletin of Hokkaido University* Vol.32 No.1, (1981.11).
14. Takagi Shigetoshi. "Wang Bo "Chunsi Fu" and Ru·Luo's Seven words Long poem". *Shukan toyo gaku* Vol.47, (1982.5).
15. *Wenyiduo Quanji*, Sanlian bookstore, 1982.
16. Xu Da Annotation. *The Full Translation of ShiPin*. Guizhou People's Press, 1990.
17. Xu Donghai. *A Study of Yu Xin's Life and Fu*. Wenshizhe Press, 1984.
18. Xu Jie, Guo Weisen.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CiFu*. Jiangsu Education Press, 1996.
19. Xu Lian. *Annotated Anthology of the Six Dynasties*. Yumin Press, 1974.
20. Xue Tianwei. *Tangdai GexingLun*, People's Literature Press, 2006.

< 참고문헌 >

1. 白承錫, 〈초당부의 발흥에 대하여〉, 《중어중문학》 21권, 1997.
2. 白承錫, 〈駱賓王賦研究〉, 《中國語文學》第49輯, 2007.
3. 鮑明煒, 《唐代詩文韻部研究》, 江蘇古籍出版社 1990.
4. 蔣清翊注, 《王子安集注》, 上海古籍出版社, 1995.
5. 李調元, 《賦話》, 廣文書局, 1971.
6. 劉熙載, 《藝概》, 廣文書局, 1974.
7. 羅仲鼎校注(王世貞著), 《藝苑卮言校注》, 齊魯書社出版社 1992.
8. 穆克宏, 《魏晉南北朝文論全編》, 江蘇教育出版社 1996.
9. 《舊唐書》,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10. 沈惠樂·錢偉康, 《初唐四傑和陳子昂》, 上海古籍出版社, 1987.
11. 《四庫全書簡明目錄》, 河洛圖書出版社, 1975.
12. 孫梅, 《四六叢話》, 世界書局, 1970.
13. 高木重俊, 〈王勃の生涯と文學〉, 《北海道大學紀要》 第32卷 1號, 1981年11月.
14. 高木重俊, 〈王勃「春思賦」と盧·駱の七言長篇詩〉, 《集刊東洋學》 47, 1982年05月.
15. 《文一多全集》, 三聯書店, 1982.
16. 徐達 譯, 《詩品全譯》, 貴州人民出版社, 1990.
17. 許東海, 《庾信生平及其賦之研究》, 文史哲出版社, 1984.
18. 許結·郭維森, 《中國辭賦發展史》, 江蘇教育出版社, 1996.
19. 許槿, 《六朝文絮箋註》, 育民出版社, 1974.
20. 薛天緯, 《唐代歌行論》, 人民文學出版社, 2006.

< Abstract >

In conclusion, the Chunsi Fu(Fu on the Spring Thinking)春思賦 shows Wang Bo's 王勃 exploration and innovation in both content and form. It combines describing objects and conveying ambition, and contains personal feelings of life experience as well as one's ideality and pursuance in the description of scenery and object, which leads the trend of expanding and deepening the themes of Tang Fu 唐賦. In form, it largely uses five-words or seven-words lines, including alternate correspondence in tune patterns and rhyming in each or every other sentence. This creates a new style of producing a Fu as a poem and combining them together. Therefore, the Chunsi Fu(Fu on the Spring Thinking) is an important piece of work which forms a connecting link between the preceding and the following in the development history of the fu literature.

Key Words : 왕발(Wang Bo), 춘사부(Chunsi Fu), 당부(Tang Fu), 변부 (Pian Fu. Parallel Fu), 7언장편가행시(Seven words Long poem), 내용과 형식의 혁신(Content and form of innovation)

